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5.02.11

KOSDAQ | 자본재

**태광** (023160)**중동과 북미의 LNG PJ 확대로  
수혜 장기화 전망****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2024년 1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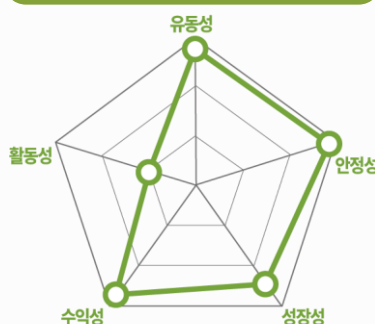
- 중장기(2024~2026)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1)PBR 1.0배 이상, 2)주주환원을 30% 목표, 3)배당 유지 또는 확대시행
- 주주환원 확대: 2024~2026년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포함한 주주환원을 30% 목표로 예측가능성 및 주가 안정성 강화, 현금배당 수준을 전년 유지 또는 확대시행, 2024년의 경우 결산배당을 최소 1주당 200원 이상 실시 (2023년 170원)

## ■ 기업가치 제고 이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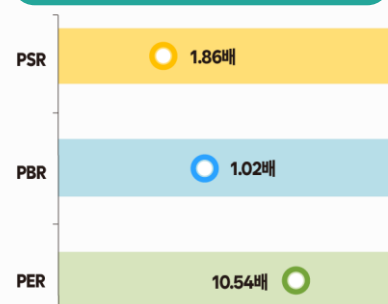
- 2024년 결산배당 1주당 250원 결정, 배당총액은 65억 원으로 2024년 추정순이익대비 14.4%의 주주환원을 달성
- 연간 DPS를 2024년 250원에서 2025년 350원으로 가정하면 배당총액은 2024년 65억 원에서 2025년 91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 당리서치의 순이익 전망치와 주주환원을 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60~70억 원의 자사주 매입 필요

**체크포인트**

- 투자포인트: 1)트럼프 2기 LNG 프로젝트 개발 수혜 전망 2)최대 수요시장인 중동의 부활, 3)국내 조선업 호황에 따른 조선해양 수요비중 상승, 4)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
- 2025년 매출액 3,310억 원, 영업이익 588억 원으로 매출액은 2012년 이후 13개년 최대치,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17개년 최대치 전망, 2025년부터 중동 및 미주지역의 전례 없는 LNG 프로젝트 동반 특수로 연간 수주액은 3,000억 원대로 Level-Up 예상

**주가 및 주요이벤트****재무지표**

주: 2023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3년 기준, PBR은 3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 트럼프 2기 정부 LNG 수출 확대정책으로 북미發 플랜트 피팅 특수 기대

북미지역 LNG산업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수혜산업, LNG 터미널 및 조선용 피팅 수요 동반 증가로 북미지역은 중동지역과 더불어 피팅 수요 견인차 역할 전망, 북미 LNG 수출량은 2028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6.4%를 기록하며, 두배 이상 증가할 전망

### 최대 수요시장인 중동의 부활

2024년 국내 EPC 중동 수주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대비 36.9% 급증하였으며, 수주비중은 46.3%로 2010년 이후 최고치, 동사의 중동 수출비중은 2023년부터 50% 상회, 사우디의 자푸라 가스전,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파딜라 가스전 증설 등에 더해 카타르 국영 QE는 북부가스전(North Field)의 생산능력을 기존 7,700만 톤에서 3단계 확장공사를 통해 2030년까지 1억 4,200만 톤으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카타르는 사우디에 이어 중동지역 2대 수요시장으로 부상

### 국내 조선업 호황에 따른 조선해양 수요비중 상승

국내 조선3사 합산 수주잔고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136조 원으로 2008년 이후 16년 최대치로 증가, 국내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추가 수주 가능성도 기회요인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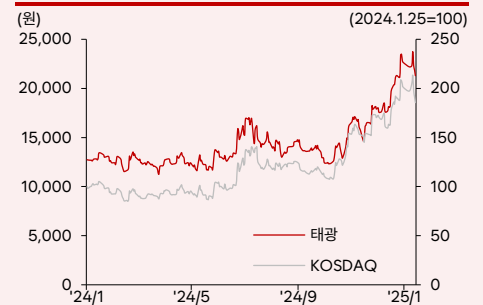
|              | 2021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매출액(억원)      | 1,851 | 2,497 | 3,121 | 2,698 | 3,310 |
| YoY(%)       | -1.7  | 34.9  | 25.0  | -13.6 | 22.7  |
| 영업이익(억원)     | 135   | 454   | 577   | 411   | 588   |
| OP 마진(%)     | 7.3   | 18.2  | 18.5  | 15.3  | 17.8  |
| 지배주주순이익(억원)  | 152   | 358   | 551   | 444   | 505   |
| EPS(원)       | 574   | 1,350 | 2,078 | 1,675 | 1,905 |
| YoY(%)       | 흑전    | 135.1 | 54.0  | -19.4 | 13.7  |
| PER(배)       | 18.9  | 11.9  | 7.1   | 10.5  | 11.2  |
| PSR(배)       | 1.6   | 1.7   | 1.3   | 1.7   | 1.7   |
| EV/EBITDA(배) | 11.4  | 6.7   | 4.9   | 7.5   | 6.8   |
| PBR(배)       | 0.7   | 0.9   | 0.7   | 0.8   | 0.9   |
| ROE(%)       | 3.5   | 7.8   | 10.9  | 8.1   | 8.6   |
| 배당수익률(%)     | 0.9   | 1.1   | 1.2   | 1.4   | 1.6   |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               |                       |
|---------------|-----------------------|
| 현재주가 (2/7)    | 21,300원               |
| 52주 최고가       | 23,750원               |
| 52주 최저가       | 11,250원               |
| KOSDAQ (2/7)  | 742.90p               |
| 자본금           | 133억원                 |
| 시가총액          | 5,645억원               |
| 액면가           | 500원                  |
| 발행주식수         | 27백만주                 |
| 일평균 거래량 (60일) | 63만주                  |
| 일평균 거래액 (60일) | 113억원                 |
| 외국인지분율        | 11.38%                |
| 주요주주          | 대신인터내셔널 외 10 인 45.63% |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 주가수익률(%)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
| 절대주가     | 175 | 326 | 651  |
| 상대주가     | 136 | 336 | 80.5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 기업 개요

### 회사 연혁

#### 1965년 설립된 산업용 파이프 피팅 국내 1위기업

태광은 1965년 5월 설립된 산업용 파이프 피팅 국내 1위기업이다. 동사는 1982년 태광벤드공업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고, 1994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태광으로 상호변경하였다.

동사는 부산시 진구 양정동에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1973년 사상공단 공장, 1985년 신평·장림공단, 2001년 녹산 공단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2010년 60,320m<sup>2</sup> 규모의 화전 2공장을 준공하였으며, 2012년 48,606m<sup>2</sup> 규모의 화전 2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본사인 녹산 1공장과 화전 2,3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Elbow, Tee, Reducer, 기타 등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제품 생산능력은 14.6만톤이다.

동사는 종속회사 에이치와이티씨를 통해 2차전지 생산설비부품 제작을, 종속회사 파운드리서울을 통해 점포임대 및 전시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1월 에이치와이티씨 주식 지분을 45.8%를 취득하며 종속회사로 편입하였다. 에이치와이티씨는 반도체, LED 금형, 2차전지 부품 등 초정밀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 2000년 한영정공으로 설립되어 2005년 법인 전환하였으며, 2022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2021년 3월 파운드리서울 지분을 91.67%를 취득하며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4년 6월 추가로 파운드리서울의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는 지분을 100.0%를 보유하고 있다.

#### 회사 연혁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피팅 수요산업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사업영역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플랜트 기자재(태광) 88.1%, 2차전지 기자재(HYTC) 11.4%, 부동산 임대(파운드리서울) 0.5%를 기록하였다.

## 플랜트 기자재: 태광

플랜트 기자재 사업부문은 연결기업을 제외한 별도 기준 태광이 영위하는 사업이다.

피팅이란 유체 및 기체류의 운송에 사용되는 배관자재로, 동사는 석유화학/정유/가스플랜트, 화력/원자력발전/담수, 해양구조물/조선 등 각종 플랜트용 피팅류들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가 제조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ELBOW, TEE, REDUCER, CAP, 기타 등으로, ELBOW와 TEE는 각각 ㄱ 모양, T 모양의 파이프 연결관 이음쇠이며, REDUCER은 큰 파이프와 작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관 이음쇠이다. CAP은 파이프 끝부분의 마감재 역할을 하며, 각종 파이프 연결에 사용된다. 주요 원소재는 탄소강 Pipe(강관)나 Plate(후판)를 가공해 제작하며,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제품에는 STS 및 Alloy 등도 사용된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소재별 매출비중은 Carbon(탄소강) 56.8%, STS 33.1%, Alloy(합금) 10.1%를 차지하였다.

## 플랜트 기자재 주요 제품은

Elbow, Tee, Reducer, Cap 등

플랜트용 피팅류

## 3Q24 기준 수요산업 매출비중은

석유화학/가스 34%, 조선해양

11%, 발전/담수 4%, 기타

51%로 구분,

지역별로는 중동이 50.3%, 미주

27.1%로 두지역이 80%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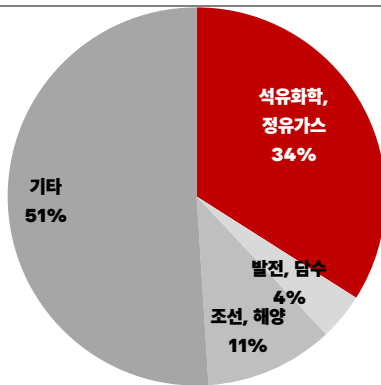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수요산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및 정유가스 34%, 조선 및 해양 11%, 발전 및 담수 4%, 기타 51% 등이다. 내수/수출의 별도 매출 비중은 내수 19%, 수출 81%로 수출 비중이 내수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수출하는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동 50.3%, 아시아 18.1%, 미주 27.1%, 유럽 2.2%, 기타 2.3% 등이다. 2020년 기준 중동이 차지하던 매출 비중은 30.7%였으나, 2021년 31.1%, 2022년 47.9%, 2023년 57.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의 매출 비중은 2020년 42.2%에서 2021년 49.9%, 2022년 28.0%, 2023년 18.3%로 점차 하락하였다. 태광의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개별 매출액은 1,768억원, 영업이익 308억 원, 당기순이익 329억 원을 기록하였다.

## 주요 관이음쇠 제품

┐ 모양의 파이프  
연결관이음쇠큰 파이프와 작은  
파이프의 연결에  
사용되는 관이음쇠T 모양의 파이프  
연결관이음쇠파이프 끝부분의  
마감재, 각종  
파이프의 연결에  
사용되는 관이음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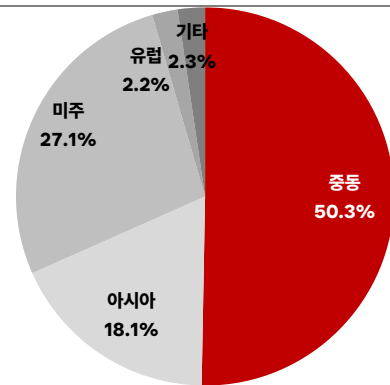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수요산업 비중(3Q24 누적)



자료: 태광,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지역별 수출비중(3Q24 누적)



자료: 태광,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차전지 기자재: (주)에이치와이티씨

HYTC는 2차전지 공정 중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 장비 공급

에이치와이티씨(HYTC)는 2차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의 초정밀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0년 한영정 공으로 시작하여 반도체, LED 금형, 2차전지 부품 등 초정밀 부품 제작에 집중하였고, 10년 이상의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 및 제품개선을 통해 배터리 제조 공정 중 화성공정을 제외한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HYTC는 경기도 군포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폴란드, 중국남경, 미국, 인도네시아에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다. HYTC의 주요 제품으로는 극판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PX-SHAFT 및 KNIFE UNIT과 KNIFE-SPACER, 조립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권심, CUTTER와 초음파 혼, ANVIL, 절연판 금형 등이 있으며,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SDI, LGES, SK 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생산업체와 테슬라,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 등이 있다.

HYTC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액 228억원, 영업이익 2억원(OPM 0.7%), 당기순이익 19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매출액 기여비중은 12.9%, 영업이익 기여비중은 0.5%이며, 연결 순이익 기여비중은 5.5%를 차지하였다.

**부동산임대, 전시기획: 파운드리서울(주)**

파운드리서울은 투자부동산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24번지에 FOUNDRY 빌딩(대지면적 168평, 연면적 1,025평, 지하4층~지상 6층)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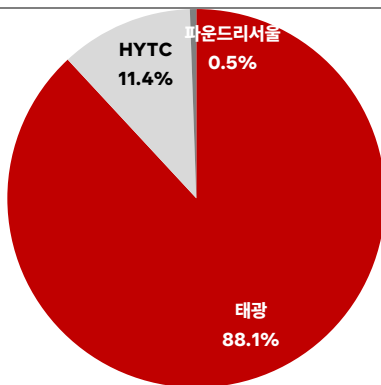
2024년 3분기 누적 부동산 임대매출은 1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3 주주현황**
**최대주주는 대신인터내셔널로  
지분율은 27.30% 보유**

최대주주는 대신인터내셔널로, 2024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은 27.30%이다. 대신인터내셔널은 2002년 1월 설립되었으며, 태광의 배관자재, 관이음쇠류의 무역업 대행 및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사이다. 대신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故 윤종규 태광회장의 3세인 윤원식으로, 2023년 기준 지분율 49.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 주주로는 윤원식 사장의 쌍둥이인 윤준식 사장 48.48%, 대신 1.08% 등이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73억 원, 영업이익은 11억 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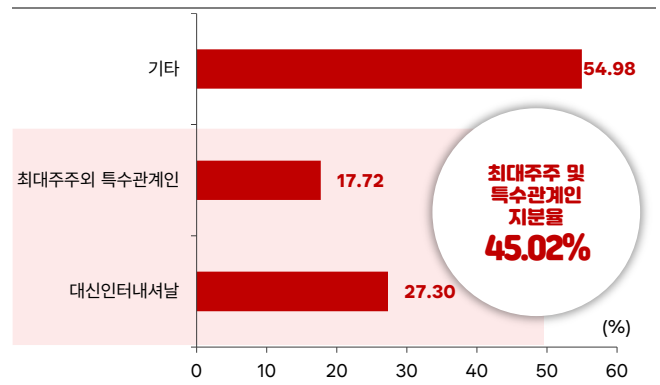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5.02%이며, 대신인터내셔널 외 윤성덕 대표이사 8.52%, 대신 5.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성덕 대표이사는 창업주故 윤종규 태광 회장의 2세로, 한양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부산대 국제대학원 석사 및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태광의 생산관리 담당 상무이사, 부사장을 거쳐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연결기준 매출비중(3Q24 누적)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3Q24)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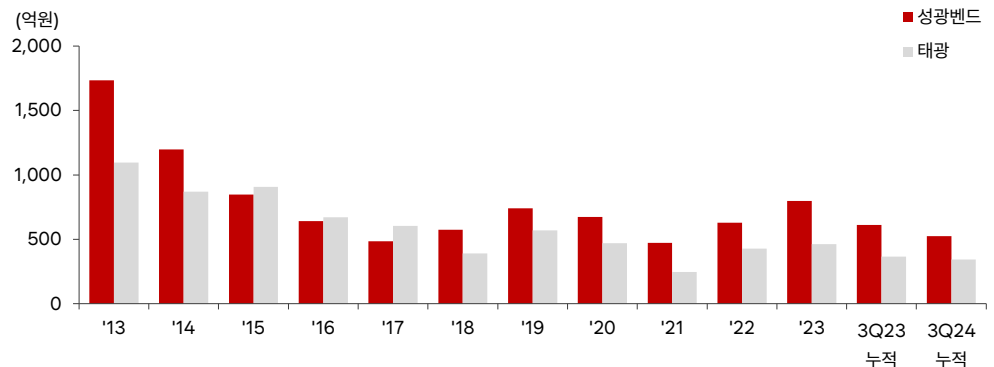
## 1 국내 용접용(Butt-welding) 피팅 시장(Fittings Market) 동향

국내 용접용 피팅 내수시장은  
성광벤드와 태광이 6:4 비율로  
시장 양분

국내 용접용 피팅시장은 성광벤드와 태광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으로 2024년 3분기 누적 내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성광벤드가 60%, 태광이 40%를 차지하였다. 동기간 내수 매출액은 성광벤드가 52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0% 감소하였으며, 태광은 34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하여, 양사 합산 3분기 누적 내수 매출액은 86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1.0%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과거 양사 합산 내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해양플랜트 특수로 2013년에는 2,8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 이후 이어진 장기 低유가에 따른 조선사들의 중동·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및 건설 EPC 프로젝트 수주 감소, 국내의 脫원전정책 등에 따라 내수 시장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717억원으로 2013년 피크시기의 1/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양사 합산 내수 매출액은 2022년 1,055억 원, 2023년 1,260억 원으로 2021년 코로나19 시기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매출액 절대규모는 2013년 호황 당시 수준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용접용 피팅 2개사 내수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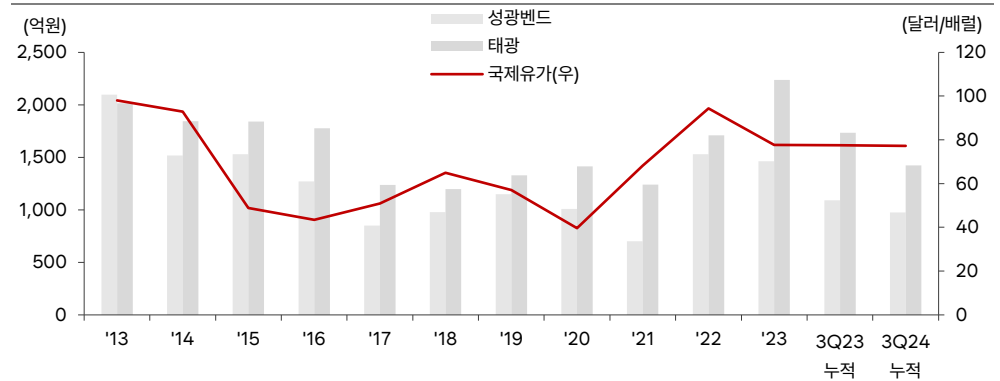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수출시장에서는 태광이  
글로벌 1위업체, 2023년 이후  
국제유가 약세와 에너지기업들의  
투자 위축 및 지연 등으로  
2024년 들어 수출액은 감소

내수시장에서는 성광벤드가 시장점유율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시장에서는 태광이 부동의 글로벌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호황기에는 동사와 성광벤드의 수출액이 각각 2,096억원과 2,014억원으로 비슷했지만, 2014년 이후로는 줄곧 동사가 1위를 유지하며 양사간 수출액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 이후 2022년 수출액은 성광벤드 1,531억원, 태광 1,709억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성광벤드는 1,4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반면, 태광의 수출액은 2,2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8%나 급증하며 성광벤드와의 수출액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2023년 이후 국제유가 약세와 주요 에너지기업들의 투자 정체 및 지연 영향으로 2024년 들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성광벤드는 97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했으며, 태광은 1,42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0% 감소해 동기간 양사 합산 수출액은 2,4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하여 내수시장 매출감소폭을 상회하였다. 양사 중에서는 수출비중이 높은 태광의 수출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내 용접용 피팅 2개사 수출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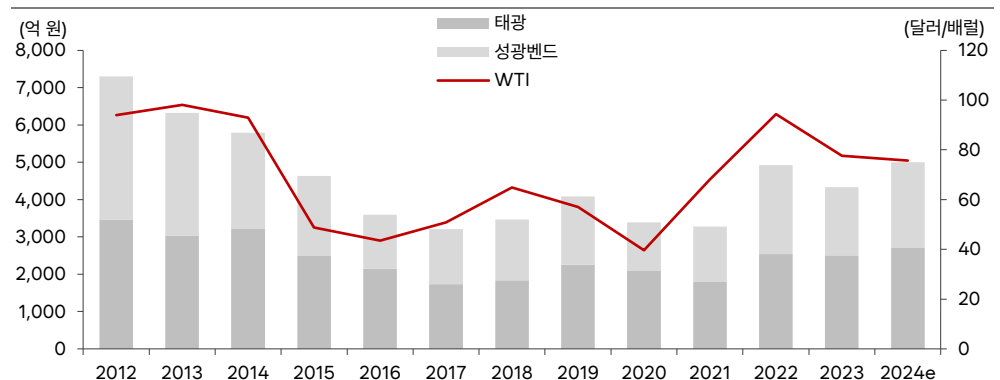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2022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주 및 중동지역 LNG 프로젝트 발주 증가 및 국내 조선사 친환경 선박 수주 급증으로 2024년말 피팅 2사 합산 수주액은 10년래 최대치로 증가 추정

국내 용접용 피팅 2사의 합산 수주액은 과거 국제유가 추세와 동행성을 보였으나, 2022년 이후 국제유가의 약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수주액은 증가하는 등 디커플링(De-coupling)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이후 나타난 새로운 패턴으로 2022년 2월 러-우전쟁 이후 기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PNG 육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반대급부로 미주지역과 중동으로부터 LNG 프로젝트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선박시장에서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 조선3사의 LNG 등 친환경 선박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주잔고가 2008년 이후 16년 최대치로 증가하는 등 조선용 수요가 증가한 점도 피팅업체들의 수주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22년 고점대비 약세라 해도 2021년 이후 배럴당 평균 \$70~80대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중동발 수요가 견조한데다, 미주지역으로부터 LNG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중동과 미주지역이 동시에 글로벌 피팅시장을 견인하는 2014년 이후 다시 찾아 온 십년 만의 제2의 호황이다. 국내 피팅 2사의 합산 수주액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94이던 2012년 7,305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4,636억 원, 2017년 3,212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말에는 러우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국제유가가 \$90대를 돌파하면서 수주액이 4,927억 원으로 2014년 이후 8년 최대치를 회복했다. 이후 2023년부터 국제유가 약세와 에너지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2023년 양사 합산 수주액은 4,331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연간으로는 5,000억 원에 달해 2014년 이후 10년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별로는 2024년말 기준 태광의 수주액은 2,700억 원, 성광벤드는 2,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용접용 피팅 2개사 수주금액 및 국제유가 추이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해외 플랜트 수주 동향

**2024년 해외건설수주액은  
371억 달러로 2015년 이후  
9개년 최대치 경신**

해외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해외건설수주액은 3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며 2015년 이후 9개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개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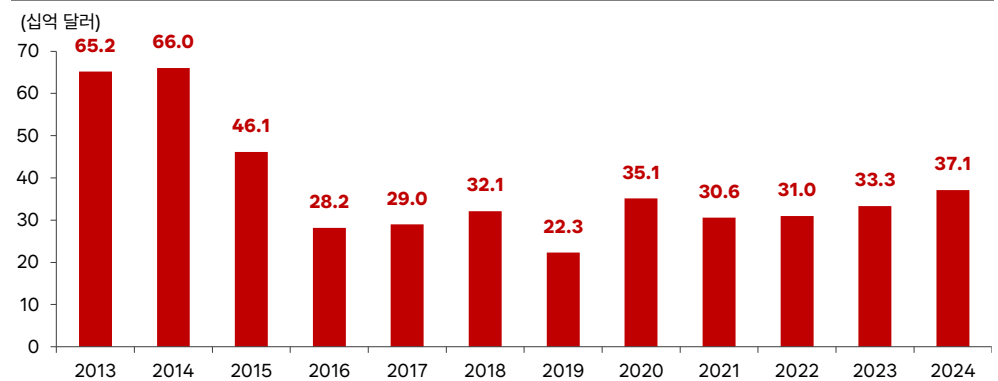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 수주액이 185억 달러로 전년대비 62.2%나 급증하면서 전체 수주 증가를 견인하였다. 2023년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대기업의 북미지역 진출효과로 급증했던 북미지역 수주액은 역기저효과로 2024년에는 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4.5% 급감하면서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2024년 지역별 수주비중은 중동 49.8%, 아시아 19.2%, 유럽 13.6%, 북미 12.6%, 중남미 4.1%, 아프리카 0.7%를 차지하여 중동비중이 전년대비 15.5%p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북미비중은 2023년 31.0%에서 18.4%p 하락하였다. 유럽비중은 2023년 6.3%에서 2024년 13.6%로 7.3%p 상승하였으며, 아시아비중은 19.2%로 전년대비 1.2%p 하락하였다. 국가별로는 사우디 수주액이 1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5.4% 증가하며 1위를 기록하였고, 뒤를 이어 카타르 47.5억 달러(2위), 미국 37.3억 달러(3위), 헝가리 27.5억 달러(4위), 세르비아 16.6억 달러(5위), 말레이시아 13.6억 달러(6위), 중국 13.1억 달러(7위) 순이었다.

**공종별로 산업설비 수주비중이  
65.5%로 7년 만에 60%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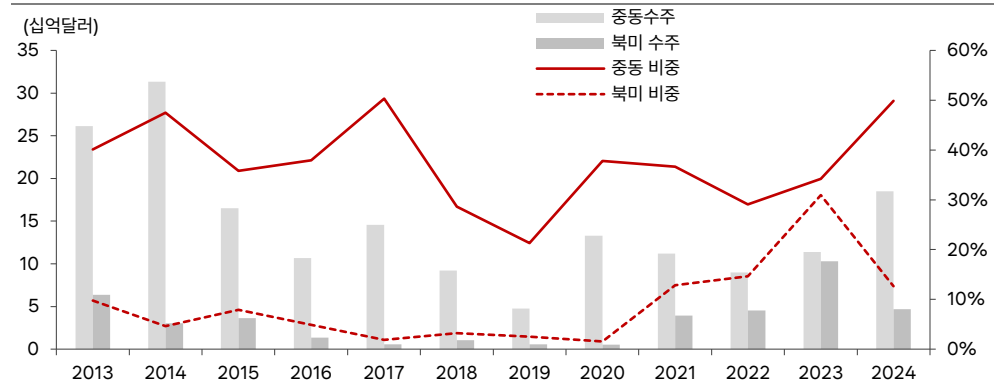
세부 공종별로는 국내 용접용 피팅산업 수요에 특히 중요한 것은 발전소, 화학공장, 정유공장, 가스처리시설 등 산업설비 비중이다. 국내 용접용 피팅산업이 최대 호황을 누렸던 2012년에서 2014년 당시의 산업설비 비중은 2012년 61.0%, 2013년 60.8%에서 2014년 78.3%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산업설비 수주비중이 2022년 42.3%, 2023년 47.4%로 하락하였다. 2024년 산업설비 수주액은 243억달러로 전년대비 53.8% 급증하였으며, 산업설비 수주비중은 65.5%로 전년대비 18.1%p 상승하였다.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9개년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2014년 호황 당시의 수주금액인 517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주비중으로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60%대를 회복하였다.

해외건설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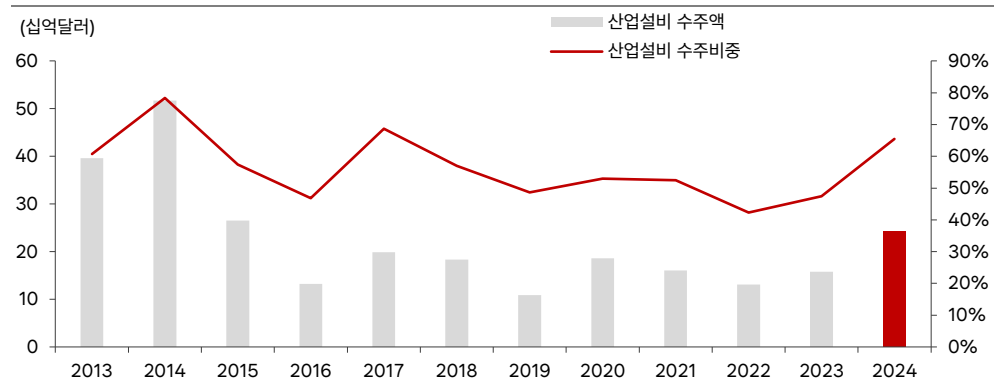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중동 및 북미지역 해외건설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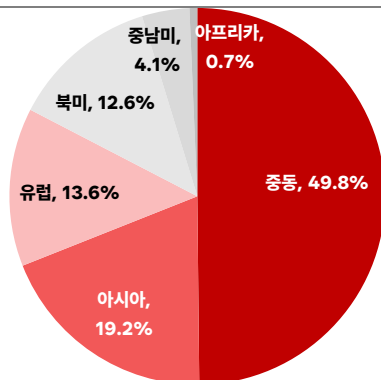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공종별 산업설비 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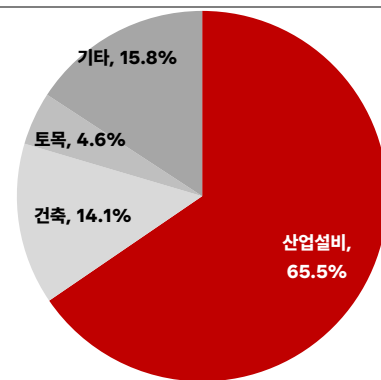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지역별 해외건설수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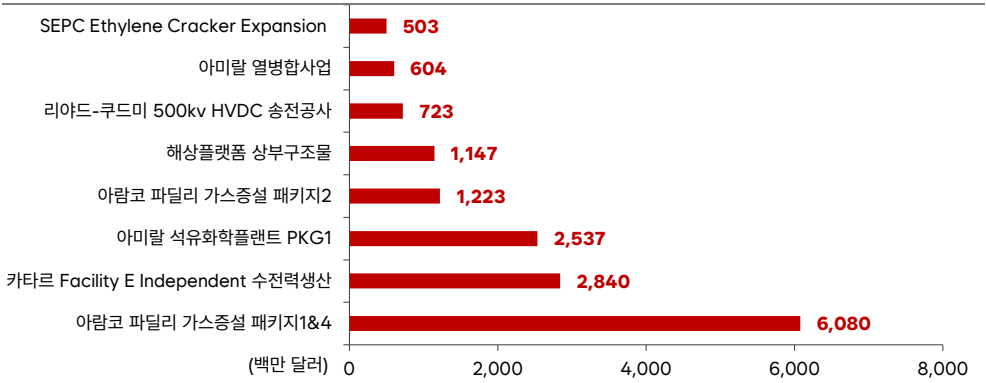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공종별 해외건설수주 비중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국내 EPC 업체 주요 중동 프로젝트 수주건 요약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투자포인트

## 1 트럼프 2기 LNG 프로젝트 개발 수혜 전망

**북미지역 LNG산업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수혜산업, LNG 터미널 및 조선용 피팅 수요 동반 증가로 북미지역은 중동지역과 더불어 피팅 수요 견인차 역할 전망**

전통적으로 용접용 피팅 시장은 중동지역이 최대 수요 시장이었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부터 처음으로 호주 및 카타르 등 LNG 수출강국을 제치고 미국이 LNG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지역과 더불어 북미시장이 피팅 시장 수요의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환경보호 문제를 명분으로 2024년 1월 Non-FTA 국가에 대한 LNG 수출 승인을 잠정 중단하면서 북미지역의 투자 지연으로 용접용 피팅 시장 수요도 정체되었으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는 지난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했던 신규 LNG 터미널 프로젝트 허가 중단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신규 수출 터미널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등 LNG 수출 부문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최대 수혜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별 수출비중에서 중동에 이어 미국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동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의 북미 수출비중은 2021년 12.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8.4%, 2023년 22.4%, 2024년 3분기 누적 27.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미지역의 LNG 수출물량 확대에 LNG 선박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글로벌 LNG선박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조선3사의 수주도 증가하게 되며, 석유화학/가스 산업에 이어 동사의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종의 피팅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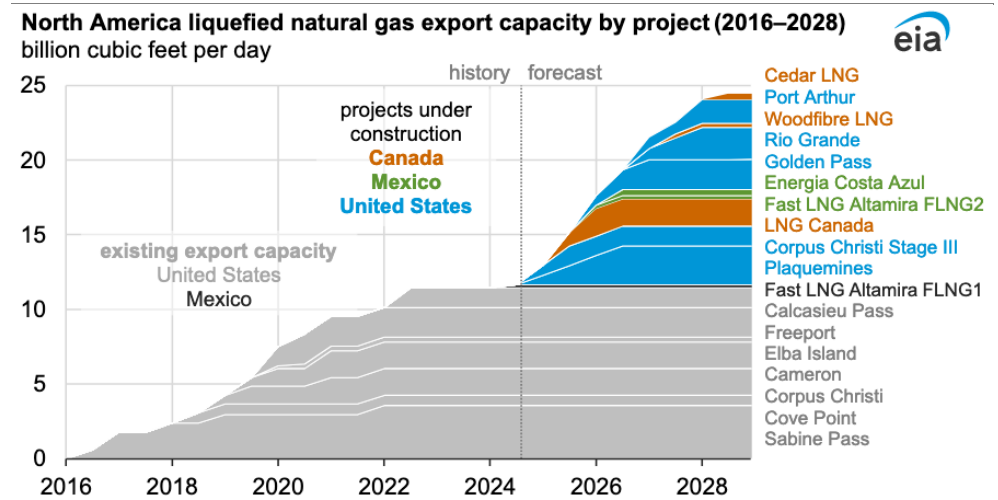
**북미 LNG 수출량은 2028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6.4%를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2024년 12월 EIA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북미지역의 LNG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북미지역의 LNG 수출량은 2023년 11.4bcf/d(billion cubic feet per day)에서 2028년 24.4bcf/d 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며 연평균성장률(CAGR)은 16.4%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LNG 수출량은 2023년 4,161bcf에서 2028년 8,906bcf로 증가하게 된다.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현재 10개의 신규 LNG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9.7bcf/d, 캐나다는 2.5bcf/d, 멕시코는 0.8bcf/d의 수출량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동부해안지역에서 Cove Point, Elba Island, 걸프만의 Sabine Pass, Freeport, Cameron, Calcasieu Pass, Corpus Christi 등 7개 LNG 터미널이 가동 중이며, 이에 더해 신규로 Plaquemine, Corpus Christi Stage III, Golden Pass, Rio Grande, Port Arthur 등 5개 프로젝트가 추가될 전망이다. 캐나다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LNG Canda(1.88bcf/d, 2025년 하반기 가동), Woodfibre LNG(0.3bcf/d, 2027년 가동), Cedar LNG(0.48bcf/d, 2028년 가동) 프로젝트가 추가될 계획이다. 멕시코는 현재 1개(Fast LNG Altamira FLNG 1)의 LNG 터미널이 운영 중이며, 신규로 Fast LNG Altamira FLNG2 및 Energia Costa Azul LNG 등 2개의 터미널이 추가될 전망이다. 특히 Energia Costa Azul LNG는 멕시코 서부 해안에 인접해 있어 완공되면 미국산 LNG가 파나마운하를 거치지 않고도 아시아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4년 미국의 LNG 수출량은 Freeport 화재사고와 설비 트러블에 따른 정상가동 지연과 신규 터미널 유입 부재로 전년대비 처음으로 1.1% 감소한 4,295bcf로 추정되나, 2025년에는 천연가스 시추 및 생산 관련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 완화와 2024년 완공된 Plaquemines(루이지애나), Corpus Christi III(텍사스) 터미널 가동이 온기로 반영됨에 따라 연간 LNG 생산능력이 전년대비 34%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이후 2026년 9%, 2027년 31%, 2028년 13% 등 향후 4년간 2배 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북미 LNG 수출능력 전망(2016-2028)



자료: EI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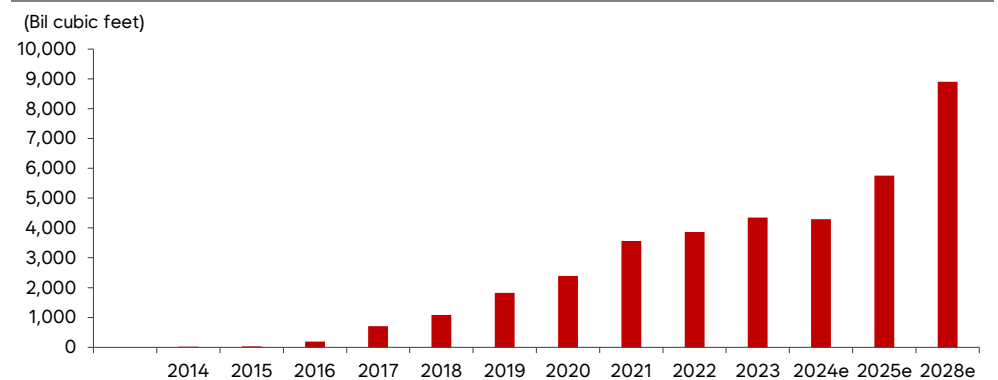
## 북미 기존 및 신규 LNG 수출터미널 프로젝트 지역별 현황

## North America liquefied natural gas export facilities, existing and under construction (2016-2028)



자료: EI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북미 LNG 수출 전망



자료: EI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최대 수요시장인 중동의 부활

**2024년 국내 EPC 중동  
수주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대비  
36.9% 급증하였으며, 수주비중은  
46.3%로 2010년 이후 최고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EPC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338억 달러로 전년대비 11.7%, 2015년 이후 9개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중동지역 수주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대비 36.9% 급증하며 전체 수주비중의 46.3%를 차지해 전년대비 8.5%p 수주비중이 상승하였다. 중동 수주비중은 2010년 59.1%를 기록한 이래 지난 해 14개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액은 2014년 이후 장기 저유가 국면이 이어지며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2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 정유가스산업이 주요 전방산업인 동사와 같은 산업용 피팅업체들도 수주 및 실적 침체 국면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유럽간 PNG 수출이 중단되면서 해상 LNG 수요가 증가한데다, 국제유가가 코로나 엔데믹 효과로 2021년부터 상승해 중동지역의 EPC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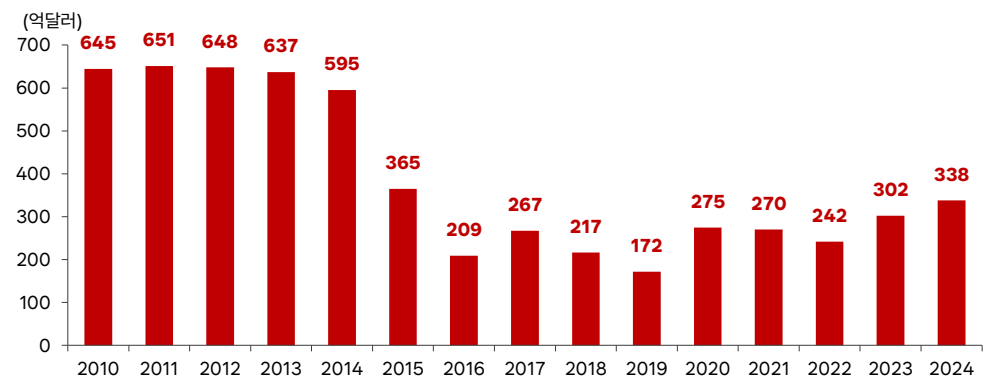
국내 건설사들은 2023년 사우디로부터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공사 및 아미랄 석유화학프로젝트 등 2개 프로젝트에 서만 74.4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우디 아람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PKG 1&4(60.8억 달러),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PKG1(25.4억 달러), 아람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PKG 2(12.2억 달러), 카타르수전력공사의 담수&발전 프로젝트(28.4억 달러), 기타 중동 발주처의 해상플랫폼 상부구조물(11.5억 달러) 등 10억 달러(조 단위) 규모를 상회하는 5건의 수주액만으로도 138억 달러(20조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졌다.

국가별로 보면 2024년 사우디 수주액은 102.1억 달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카타르 수주액은 33.1억 달러로 전년대비 157.4% 급증하였고, 기타 중동지역에서는 21.0억 달러로 전년대비 61.5%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중동지역에서 수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의 중동지역 수출비중은  
2023년부터 50% 상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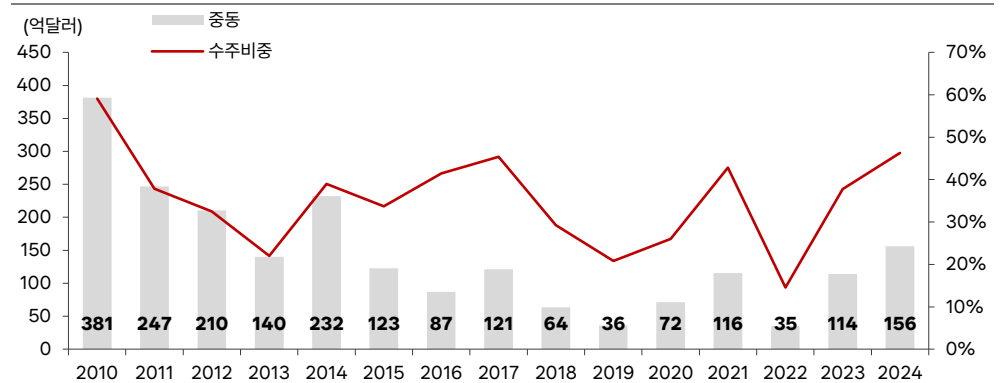
동사의 중동지역 수출액은 2021년 385억 원으로 수주비중이 31.1% 수준이었으나, 2021년 이후 코로나 엔데믹과 국제유가 강세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액은 2022년 819억 원, 2023년 1,274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동지역 수출비중은 2023년 57.0%, 3Q24 50.3%로 2023년부터 50%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EPC 해외플랜트 수주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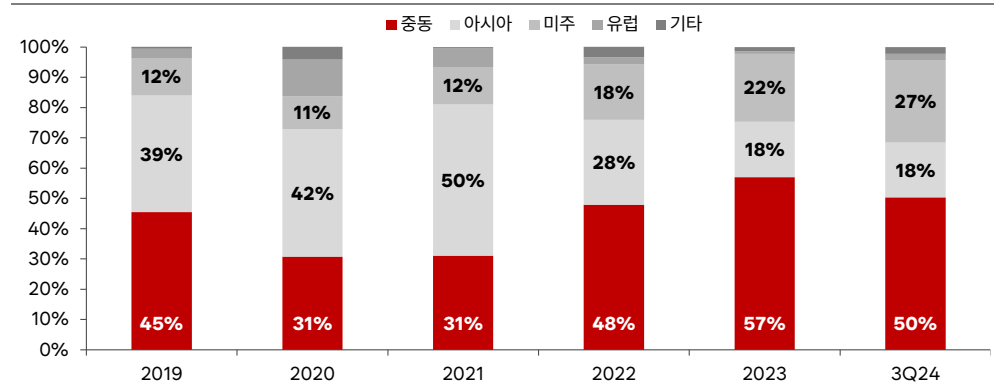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도별 중동지역 국내 플랜트 수주금액 추이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태광 지역별 수주비중 추이: 중동비중이 2023년부터 50% 상회



자료: 태광,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국내 조선업 호황에 따른 조선해양 수요비중 상승

#### 국내 조선3사 수주잔고는

#### 2008년 이후 16년 최대치로 증가

산업용 피팅 시장에서 조선업은 석유화학/가스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요비중을 차지해왔다. 특히 동사의 과거 영업이익률을 보면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비중이 40%를 상회했던 2008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조선업 중에서도 해양플랜트 비중이 동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3분기말 국내 조선3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135.8조 원(HD한국조선해양 77.1조 원, 삼성중공업 31.4조 원, 한화오션 27.3조 원)으로 2008년 이후 16개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수준이다.

해양플랜트 수주잔고만 보면 2008년말 수준(조선 3사 합산 60조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2024년 3분기말 기준으로 14.4조 원으로 추정되어 2022년 8.1조 원, 2023년 12.3조 원에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4년 3분기말 업체별 해양플랜트 수주잔고는 HD한국조선해양 3.2조 원으로 전체 수주잔고의 4.1%, 삼성중공업은 30억 달러(4.5조 원)로 전체 수주잔고의 9.6%에 불과하지만, 매년 해양플랜트 비중은 상승할 전망이다.

#### 해양플랜트 수주 기대감도 기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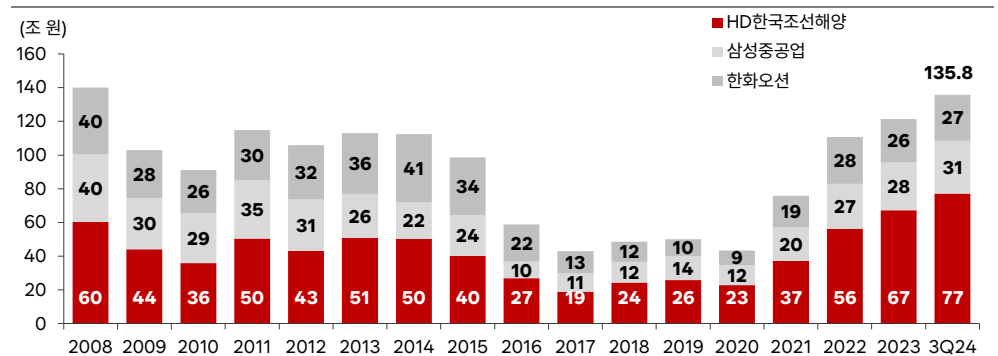
국내 조선3사 중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독보적인 시장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기대감이 크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한 FLNG 7기 중 5기를 수주하여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로 투입되는 Petronas ZLNG를 수주하여 생산에 착수한 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북

미지역의 Ceda FLNG를 수주하여 설계를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모잠비크로 투입되는 ENI Coral #2 수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 Delfin, 캐나다 Western LNG 등도 프로젝트 Feed를 완료한 상태이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LNG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FLNG 발주 증가로 매년 1~2기의 FLNG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Carbon Steel보다 고부가인 STS나 Alloy 재질비중이 확대되어 제품단가도 높아져 수익성이 개선된다. 특히 올해부터 트럼프 2기 정부의 LNG 수출 확대 정책으로 북미지역의 LNG 생산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사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선3사 수주잔고 추이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

### 기업가치 제고 3대 목표 설정

- 1) PBR 1.0배 이상 달성
- 2) 주주환원율 30% 목표
- 3) 현금배당 전년 유지 또는 확대

동사는 지난 해 11월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실시한 데 이어 예정된 공시일인 12월 2일 자율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사가 2024~2026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세가지 지표로는 1)PBR 1.0배 이상 달성, 2)주주환원율 30% 이상 지향, 3)현금배당 200원 이상 유지 또는 확대 시행 등이다.

동사는 기업가치 제고 추진방향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존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사업 확대 및 추진을 통해 ROE를 제고하고, 글로벌 피팅 제조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 관련해서는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율 30% 달성을 목표로 예측가능성 및 주가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현금배당 수준을 전년대비 유지하거나,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24년 결산배당액은 주당 최소 200원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2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현금배당금을 1주당 250원으로 결정하여 현금배당 계획을 이행하였다. 2024년 배당금 총액은 65억 원으로 2024년 예상순이익 대비로는 주주환원율 14.4%에 해당한다. 동사는 2023년 주당 170원을 배당하여 배당총액은 4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안하면 주주환원율은 7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주주환원율 30%는 지난 10개년 평균 주주환원율이 10%대 중반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두배 이상 높은 목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배당수준이 유지된다 감안하면 주주환원율 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사주를 추가로 매년 30만주 이상 매입해야 한다. 동사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기주식 632,75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 지분율은 2.3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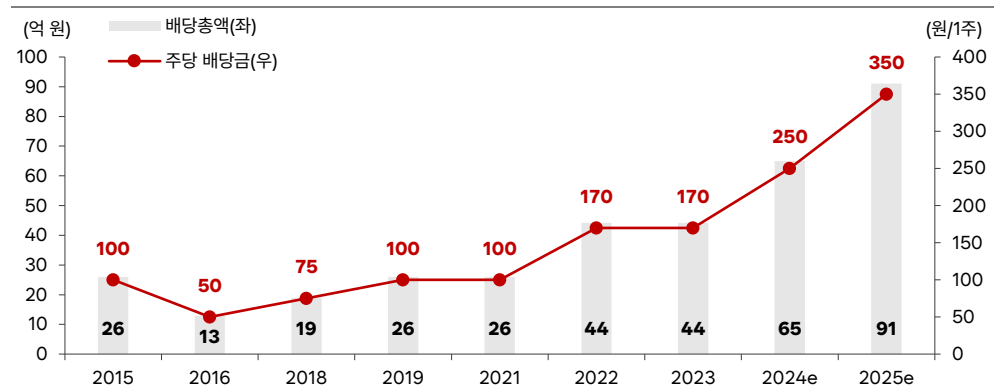
동사의 추정 순이익은 2024년 452억 원, 2025년 515억 원으로 추정되어 주주환원율 30% 충족을 위해서는 매년 각각 135억 원, 155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 또는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사가 현금배당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해 자사주 매입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리서치는 2025년 현금배당금을 350원, 배당총액을 91억 원으로 추정하여 주주환원율 30% 달성을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액이 최소 60~70억 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년간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자사주 보유분을 포함 향후 2년 후 자사주 보유비율이 5%를 상회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당사는 현금배당을 매년 늘려가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확대해야 주주환원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목표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궁극적인 주주환원을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규모만큼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만큼 ROE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PBR이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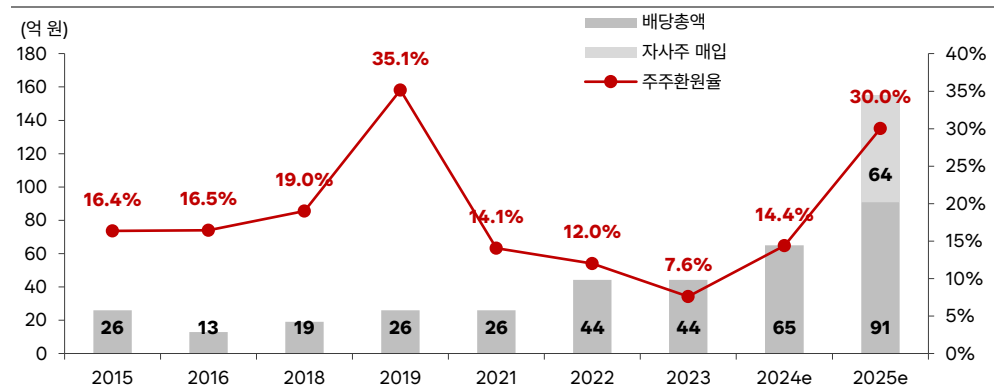
당사는 시장 소통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1)정보 이용자 편의성 제고, 2)시장 소통 강화, 3)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4)회사 주관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사는 2023년 한국IR협의회가 주관하는 코스닥 부문 한국IR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시장 친화적인 IR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태광 배당총액 & 주당 배당금 추이 및 전망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태광 주주환원율 추이 및 전망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석: 2024년 DPS 250원, 2025년 DPS 350원 반영



## 실적 추이 및 전망

### 2024년 실적 분석

**2023년 하반기 플랜트 기자재  
수주감소분이 2024년 매출에  
반영되면서 외형 감소로 실적 부진**

2024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2,007억 원, 영업이익은 302억 원, 순이익은 340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하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39.8%, 32.1% 감소하였다. 영업이익률은 15.1%로 전년동기(20.9%)대비 5.8%p 하락하였다.

별도 매출액(플랜트용 기자재)은 1,76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36.5% 감소하였다. 내수 매출액은 34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한 가운데 수출 매출액은 1,424억 원으로 17.9% 줄어들며 외형 감소를 주도하였다. 별도 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17.4%로 전년동기대비 5.7%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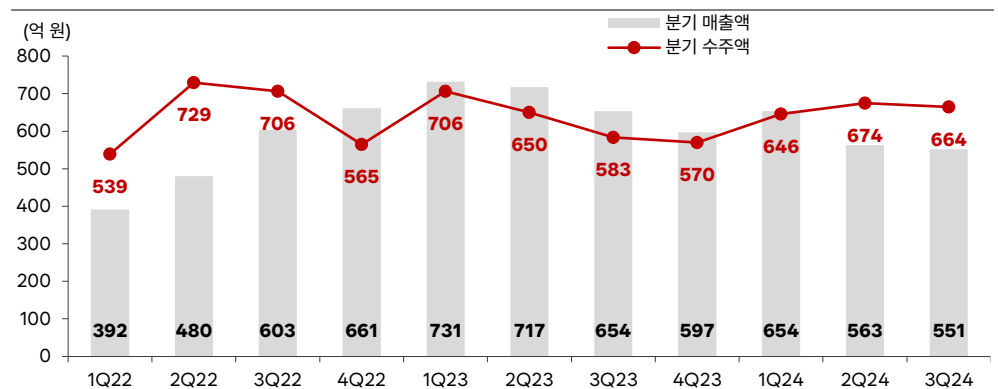
별도 기준 수요처별 매출비중은 석유화학/가스 34.0%, 조선해양 11.0%, 발전/담수 4.0%, 기타 51.0%를 차지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화학/가스 부문에서 매출비중이 2023년 43.3%에서 9.3%p 하락하였으며,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2023년(6.9%)대비 4.1%p 상승하였다.

지역별 매출비중을 보면 중동지역이 50.3%로 2023년 57.0%대비 하락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2년 연속 50%대를 유지했으며, 미주지역 매출비중은 2022년 이후 미주지역의 LNG 수출 증가 영향으로 2021년 12.4%, 2022년 18.4%, 2023년 22.4%, 2024년 3분기 누적 27.1%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재별 매출비중을 보면 Carbon Steel(탄소강) 56.8%, STS 33.1%, Alloy 10.1% 등으로 Carbon Steel 비중은 전년대비 2.9%p 하락했으며, 북미 LNG 프로젝트용 피팅 수요 증가로 STS 매출 비중은 전년대비 3.1%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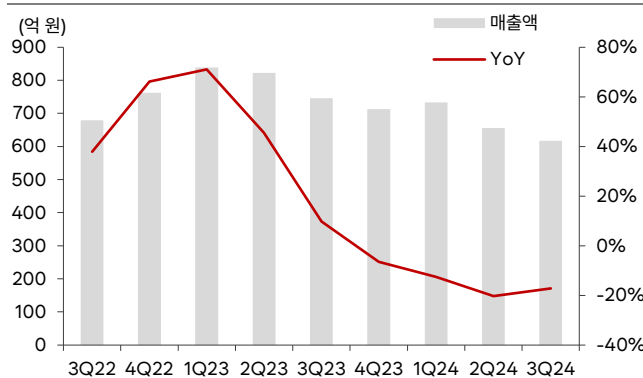
플랜트용 기자재(별도) 부문 실적 부진은 2023년 하반기 수주 감소분이 2024년 상반기 매출에 반영되며 외형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동사의 수주 이후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Lead Time은 약 5~6개월로 분기별 수주금액을 보면 2023년 상반기 중에는 1분기 706억 원, 2분기 650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3분기 583억 원, 4분기 57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수주감소분이 2024년 상반기 매출에 반영된 것이다. 2024년 들어 분기별 수주액은 1분기 646억 원, 2분기 674억 원, 3분기 664억 원으로 분기 평균 6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분기별 수주액 &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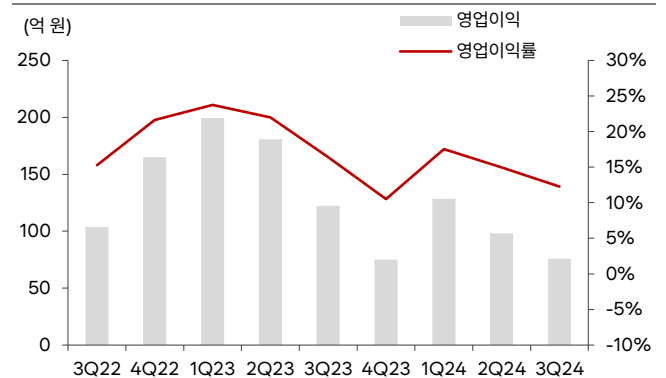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매출액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amp;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자회사 HYTC 실적 부진**

종속기업인 HYTC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2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전년동기(25억 원)대비 93.7%나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1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8% 감소하였다.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8.6%에 달했으나,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0.7%로 전년동기대비 7.9%p나 하락하여 전체 연결 실적에 기여하지 못했다. HYTC의 연결 순이익 기여비중은 전년동기 8.0%에서 2024년 3분기 누적 5.2%로 전년동기대비 2.8%p 하락하였다.

HYTC의 실적부진은 전기차시장의 침체로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이 설비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등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2024년 연결 매출액은****2,698억 원, 영업이익 411억 원 전망**

상반기 플랜트 기자재 부문의 수주 증가를 감안하여 4분기 연결 매출액은 691억 원,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전망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로는 3.1% 감소하나, 직전분기대비로는 11.8%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5% 증가할 전망이며, 직전분기대비로는 43.4% 증가할 전망이다.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률은 15.8%로 전년동기대비 5.3%p, 직전분기대비 3.5%p 상승할 전망이다.

4분기 별도 플랜트 기자재 부문 매출액은 602억 원,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8.1%로 전망된다.

2024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2,698억 원, 영업이익은 411억 원, 당기순이익은 452억 원으로 전망한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3.6%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8.7%, 22.2% 감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5.3%로 전년대비 3.2%p 하락할 전망이다. 2024년 별도 매출액은 2,3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 전년대비 26.0% 줄어든 전망이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은 17.3%로 전년대비 3.2%p 하락할 전망이다.

자회사인 HYTC 매출액은 313억 원으로 전년대비 23.0%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전년대비 95.5% 급감할 전망이다. 전기차시장의 캐즘 영향으로 고객사들의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동사의 외형도 동반 감소하고 수익성도 하락할 전망이다. HYTC의 3분기 매출액은 6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7%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억 원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 매출액 3,310억 원,  
영업이익 588억 원으로  
매출액은 2012년 이후 13개년  
최대치,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17개년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

2025년 연결 매출액은 3,3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588억 원으로 전년대비 43.0%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7.8%로 전년대비 2.5%p 상승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최대 수요시장인 중동지역의 부활과 북미지역의 LNG 프로젝트 확대로 2025년 외형은 2012년 이후 13개년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17개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부문별 매출액은 플랜트 기자재 부문(별도 매출 기준) 2,880억 원, 2차전지용 기자재(HYTC) 415억 원, 부동산 임대 외 15억 원으로 플랜트 기자재 및 2차전지용 기자재 부문이 각각 전년대비 21.5%, 32.6% 동반 증가하며 외형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플랜트용 기자재 87.0%, 2차전지용 기자재 12.5%, 부동산 임대 외 0.5%로 전망된다. 내수 매출액은 76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할 전망이며, 수출 매출액은 2,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7.9% 증가하며 전체 외형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과 미주지역 수출이 80%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 중동 및 미주지역의  
전례없는 LNG 프로젝트 특수로  
연간 수주액은 3,000억 원대로  
Level-Up 전망**

2025년부터는 전통적 최대 수요시장인 중동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도 LNG 특수로 수주 기대감이 크다.

국토부의 2024년 해외건설수주액이 3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주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 수주액은 185억 달러로 전년대비 62.2% 급증했다. 중동지역 수주비중은 2023년 34.2%에서 2024년 49.8%로 상승하였다. 특히 공종별 수주액을 보면 산업설비 수주액이 243억 달러로 전년대비 54.0% 급증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에도 국내 EPC의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2023년 302억 달러에서 2024년 338억 달러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중동지역 수주액은 2023년 114억 달러에서 2024년 156억 달러로 36.9% 증가하여, 중동지역 수주비중은 2023년 38%에서 2024년 46%로 상승하였다.

중동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사우디에서 아람코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공사,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에 이어 파딜라 가스증설 패키지가 이어지는데다, 카타르의 경우 1단계 NFE(North Field East) 프로젝트를 통해 북부가스전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5년까지 1.1억 톤으로 확대하고, 2단계 NFS(North Field South)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1억 2,600만 톤까지 확대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 확장공사가 끝나는 2030년까지는 연간 생산능력이 1억 4,200만 톤으로 현재 생산능력대비로는 84%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사우디, 카타르 등에서 가스증설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LNG 수출 확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동지역과 미주지역에서 동시에 수요를 견인하는 전례없는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연간 수주총액은 2022년 2,538억 원, 2023년 2,508억 원, 2024년 2,68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수주액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2025년 이후로는 수주액이 3,000억 원대로 Level-Up이 예상된다.

| 실적 전망     |       | (단위: 억 원, %) |       |       |       |
|-----------|-------|--------------|-------|-------|-------|
|           | 2021  | 2022         | 2023  | 2024F | 2025F |
| 매출액       | 1,851 | 2,497        | 3,121 | 2,698 | 3,310 |
| 플랜트 기자재   | 1,485 | 2,136        | 2,699 | 2,370 | 2,880 |
| 2 차전자 기자재 | 358   | 342          | 406   | 313   | 415   |
| 부동산 임대 외  | 9     | 20           | 15    | 15    | 15    |
| 영업이익      | 135   | 454          | 577   | 411   | 588   |
| 영업이익률     | 7.3   | 18.2         | 18.5  | 15.3  | 17.8  |
| 지배주주순이익   | 152   | 358          | 551   | 444   | 505   |
| 순이익률      | 8.2   | 14.3         | 17.7  | 16.5  | 15.3  |
| 매출증가율     | -1.7  | 34.9         | 25.0  | -13.6 | 22.7  |
| 영업이익증가율   | 흑전    | 235.2        | 27.3  | -28.7 | 43.0  |
| 순이익증가율    | 흑전    | 135.1        | 54.0  | -19.4 | 13.7  |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ER 10.5배, PBR 0.8배로  
코스닥평균 및 경쟁사 대비  
현저한 저평가 국면**

현재가는 2024년 추정실적대비 PER 10.5배, PBR 0.8배 수준으로 코스닥 평균 PER 38.5배, PBR 2.5배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산업용 피팅업종 주요 동종업체로는 성광벤드, 하이록코리아, 디케이락, 비엠티 등이 있으며, 이중 동사와 가장 유사한 사업구조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는 성광벤드이다. 2024년 추정실적 기준 성광벤드는 PER은 16.9배, PBR은 1.4배로 동사에 비해 60% 이상 높은 밸류에이션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양사의 ROE를 비교해보면 동사가 8.1%, 성광벤드는 9.1%로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 아니다. 동사의 주가는 지난 1년간 65.1% 급등하여 동기간 8.5% 하락한 코스닥지수대비로는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동기간 경쟁사인 성광벤드 주가는 149.3% 급등해 동사대비 2배 이상 주가수익률이 높았다.

양사의 주가수익률 괴리는 지역별 수출비중과 수주금액, 수익성 변동추이 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024년 3분기말 수주총액을 비교해 보면 동사는 1,984억 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에 그친 반면, 성광벤드는 1,608억 원으로 전년 동기(1,300억 원)대비 23.7% 증가하였다. 성광벤드는 국내시장에서는 내수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1위업체이지만, 그동안 수출액 규모는 동사에 비해 80% 수준으로 적어 수출시장에서는 동사가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2기정부 들어 LNG 프로젝트 확대 전망에 따라 북미지역 매출비중이 62%로 높은 성광벤드에 대한 시장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3분기 누적 성광벤드의 북미 수출비중은 62%, 북미지역 매출액은 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6.1%나 급증한 반면, 동기간 동사의 북미 매출비중은 27.1%, 북미지역 매출액은 386억 원으로 북미 매출비중은 전년동기 22.2%에서 4.9%p 상승했지만, 수출액은 전년 수준에서 증가하지 못했다.

성광벤드의 북미 수출비중이 높다는 것은 소재별 매출비중을 봐도 차이를 알 수 있다. 통상 LNG 프로젝트에는 극저온 상황을 견딜 수 있는 STS 소재가 주로 사용되며, STS 소재 제품은 일반 탄소강 제품(Carbon Steel)대비 고부가 제품으로 구분된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성광벤드의 STS 제품 매출액은 874억 원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한 반면, 동기간 동사의 STS 소재 매출비중은 33.1% 수준으로 성광벤드에 비해 낮다. 동사는 일반 탄소강(Carbon Steel) 비중이 평균 60% 내외로 높은 반면, 성광벤드는 고부가 강종인 STS 소재 제품비중이 평균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성광벤드와 동사의 STS 소재비중은 양사의 북미 매출비중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는 북미지역에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STS 소재 매출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2024년 3분기 누적 성광벤드 영업이익률은 24.2%로 전년동기대비 3.3%p 상승한 반면,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7.4%로 전년동기대비 5.7%p 하락하였다. 성광벤드의 북미지역 수주 및 매출 확대, 높은 STS 소재비중이 수익성 호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사의 경우 중동지역 수출비중이 50%를 상회해 중동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미지역에서는 성광벤드의 점유율이 높다. 따라서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북미지역에서 LNG산업이 최대 수혜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북미지역 수주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성광벤드가 동사에 비해 주가상승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1월 성광벤드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이후  
양사간 주가상승률 차이 확대**

양사의 주가과리율은 성광벤드가 2024년 11월 22일 주식소각을 결정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성광벤드는 100억 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67.1만주를 전량 소각 결정하였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3개월 여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성광벤드가 62.2% 급등하는 동안 동사의 주가는 44.0% 상승하여 성광벤드가 18.2%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동기 간 피팅 업종의 업황 호조 기대감에 더해 자사주 소각이 주가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사의 주가는 경쟁사인  
성광벤드대비 35% 저평가 국면**

2025년 2월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은 5,645억 원이며, 경쟁사인 성광벤드의 시가총액은 7,611억 원으로 양사간 시가총액 차이는 34.8%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술한대로 성광벤드의 주가 강세는 지역별 매출비중에서 성광벤드가 북미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 최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LNG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수익성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동사에 비해 높게 시현되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자사주 소각 등이 주가에 반영된 다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양사의 발행주식수를 보면 동사가 2,650만 주, 성광벤드가 2,860만 주로 발행주식수도 비슷하고, 과거 주가와 시가총액도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과거 10년간 양사간 시가총액 과리율은 평균 10% 이내를 유지했으나, 2024년 들어 양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극명하게 차별화되었다. 성광벤드는 시가총액이 2023년말 3,478억 원에서 2024년말 6,650억 원으로 91.2% 급증한 가운데 동기간 동사의 시가총액은 2023년말 3,903억 원에서 2024년말 4,680억 원으로 19.9% 증가하는데 그쳐 시가총액 과리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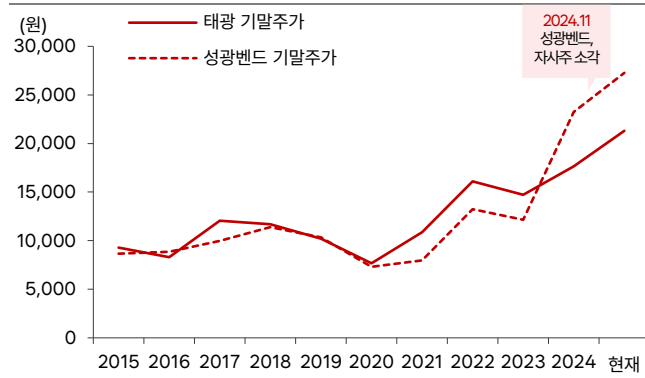
2024년 3분기 별도기준 누적 매출액을 보면 동사가 1,768억 원으로 성광벤드(1,501억 원)대비 크고, 순이익은 동사가 329억 원, 성광벤드가 330억 원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동기간 주주총액을 보면 동사가 1,984억 원으로 성광벤드의 1,608억 원에 비해 크다. 동사가 성광벤드에 비해 매출규모와 주주금액이 크고 수익성 차이로 인해 순이익 규모는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산업용 피팅 최대업체인 동사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경쟁사인 성광벤드에 비해 현저한 저평가 영역으로 성광벤드대비 3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중동에 이어 북미 LNG 프로젝트  
수주 확대 여부가 중요,  
낮은 주가 밸류에이션, 2025년  
실적 개선 기대감, 밸류업 계획 발표  
감안 시 주가는 할인축소 기대**

결과적으로 동사의 향후 실적과 주가 향방은 중동지역 특수와 더불어 북미지역에서도 동사가 얼마나 LNG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수주 확대 여부에 달려있다. 중동위주에서 북미지역으로 수출다변화, 탄소강 위주에서 STS나 Alloy 비중 확대를 통한 제품 Mix 다변화 등이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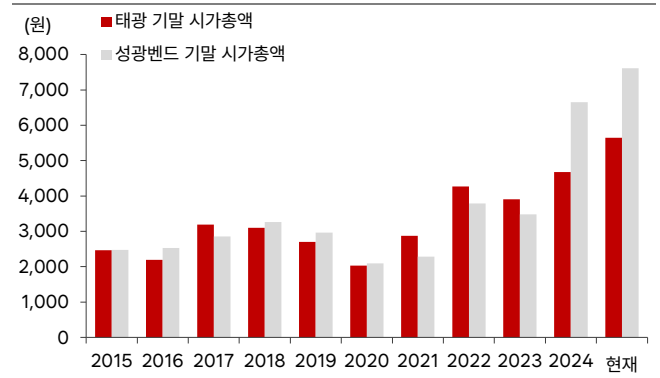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밸류에이션은 코스닥시장 및 동종사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주가할인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적인 수요시장인 중동지역의 부활과 전례 없는 북미지역의 LNG 프로젝트 확대로 2025년 외형은 2012년 이후 13개년 최대치,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17개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동사가 지난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도 기대가 크다. 특히 향후 2026년까지 주주환원을 목표를 30%로 설정한 점은 과거 평균 주주환원율대비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인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사주 소각 등 향후 자사주 처리계획이 동반된다면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상승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피팅 2사 기말 주가 추이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피팅 2사 시가총액 추이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Peer Valuation

(단위: 억 원, 배, %)

|           |       | 태광    | 성광벤드  | 하이록코리아 | 비엠티   | 다케이락  |
|-----------|-------|-------|-------|--------|-------|-------|
| 시가총액      |       | 5,645 | 7,611 | 3,375  | 718   | 740   |
| 자산총계      | 2022  | 5,940 | 5,271 | 4,119  | 2,379 | 1,729 |
|           | 2023  | 6,263 | 5,511 | 4,432  | 2,493 | 1,914 |
|           | 2024E | 6,603 | 5,907 | 4,795  | N/A   | N/A   |
|           | 2025E | 7,176 | 6,600 | 5,424  | N/A   | N/A   |
| 자본총계(지배)  | 2022  | 4,801 | 4,717 | 3,772  | 1,062 | 1,127 |
|           | 2023  | 5,288 | 5,054 | 4,035  | 1,212 | 1,329 |
|           | 2024E | 5,688 | 5,388 | 4,309  | N/A   | N/A   |
|           | 2025E | 6,151 | 5,938 | 4,643  | N/A   | N/A   |
| 매출액       | 2022  | 2,497 | 2,440 | 1,829  | 1,421 | 1,099 |
|           | 2023  | 3,121 | 2,547 | 1,888  | 1,496 | 1,114 |
|           | 2024E | 2,698 | 2,381 | 1,871  | N/A   | N/A   |
|           | 2025E | 3,310 | 2,863 | 1,909  | N/A   | N/A   |
| 영업이익      | 2022  | 454   | 268   | 407    | 230   | 114   |
|           | 2023  | 577   | 448   | 519    | 174   | 118   |
|           | 2024E | 411   | 542   | 573    | N/A   | N/A   |
|           | 2025E | 588   | 709   | 593    | N/A   | N/A   |
| 영업이익률     | 2022  | 18.2  | 11.0  | 22.3   | 16.2  | 10.4  |
|           | 2023  | 18.5  | 17.6  | 27.5   | 11.7  | 10.6  |
|           | 2024E | 15.3  | 22.8  | 30.6   | N/A   | N/A   |
|           | 2025E | 17.8  | 24.8  | 31.0   | N/A   | N/A   |
| 당기순이익(지배) | 2022  | 358   | 392   | 339    | 150   | 58    |
|           | 2023  | 551   | 392   | 473    | 168   | 116   |
|           | 2024E | 444   | 474   | 467    | N/A   | N/A   |
|           | 2025E | 507   | 585   | 460    | N/A   | N/A   |
| PER       | 2022  | 11.9  | 9.7   | 8.2    | 8.4   | 16.4  |
|           | 2023  | 7.1   | 8.9   | 7.3    | 7.3   | 7.5   |
|           | 2024E | 10.5  | 16    | 8      | N/A   | N/A   |
|           | 2025E | 11.1  | 13    | 7      | N/A   | N/A   |
| PBR       | 2022  | 0.9   | 0.8   | 0.7    | 1.3   | 0.9   |
|           | 2023  | 0.7   | 0.7   | 0.8    | 1.0   | 0.7   |
|           | 2024E | 0.8   | 1.3   | 0.8    | N/A   | N/A   |
|           | 2025E | 0.9   | 1.2   | 0.7    | N/A   | N/A   |
| ROE(지배)   | 2022  | 7.8   | 8.7   | 9.4    | 16.0  | 5.5   |
|           | 2023  | 10.9  | 8.0   | 12.1   | 14.8  | 9.4   |
|           | 2024E | 8.1   | 9.1   | 11.2   | N/A   | N/A   |
|           | 2025E | 8.6   | 10.3  | 10.3   | N/A   | N/A   |
| 현금배당수익률   | 2022  | 1.1   | 0.8   | 2.9    | 1.3   | 1.8   |
|           | 2023  | 1.2   | 1.2   | 3.9    | 1.9   | 2.8   |
|           | 2024E | 1.0   | 0.6   | 3.8    | N/A   | N/A   |
|           | 2025E | 0.8   | 0.6   | 3.8    | N/A   | N/A   |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Peer 실적 추정치는 Fnguided 컨센서스 기준



## 리스크 요인

### 1 전기차시장 침체에 따른 자회사 실적 부진

#### 전기차시장의 캐즘 영향에 따른 자회사 실적 부진 지속 우려

동사는 2021년 1월 지분투자를 통해 2차전지 설비부품사업을 영위하는 (주)에이치와이티씨(HYTC)를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HYTC는 2차전지 제조장비의 초정밀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특히 2차전지 공정 중 화성공정을 제외한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하여 배터리 협력업체, 해외 고객으로는 테슬라,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 등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HYTC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2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25억 원)대비 93.7%나 급감하였으며, 순이익은 1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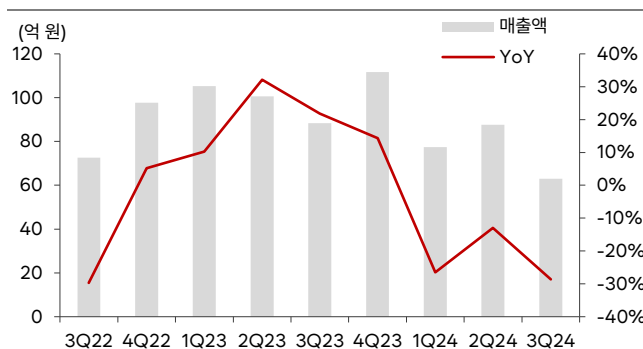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8.6%에 달했으나,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0.7%로 전년동기대비 7.9%p나 급락하여 전체 연결 실적에 기여하지 못했다. HYTC의 연결 순이익 기여비중은 전년동기 8.0%에서 2024년 3분기 누적 5.2%로 전년동기대비 2.8%p 하락하였다.

HYTC의 실적부진은 전기차시장의 침체로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이 설비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등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축소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Early Adaptor들의 전기차 구매 일단락 이후 수요 정체, 전기차의 동절기 배터리 출력 저하문제,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의 여파로 국내 배터리3사의 수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다.

고객사인 국내 배터리3사의 실적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9.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7% 감소했으며, 동기간 영업이익은 8,00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1%나 급감하였다. 영업이익률은 4.2%로 전년동기(7.1%)대비 2.9%p 하락하였다. SK온의 경우에도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4.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1% 급감하였으며, 영업적자는 전년동기 5,632억 원에서 7,676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삼성SDI의 매출액은 12.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0%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6,19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5% 급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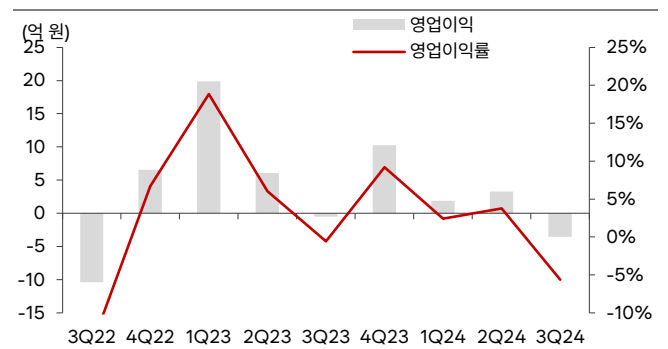
SNE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중국을 제외한 Ex-China지역의 배터리 사용량은 CAGR 58.3%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였으나, 2024년 11월 누적 기준 2차전지 사용량은 325.6GWh로 전년동기대비 13.3% 성장하는데 그쳤다. 동기간 국내 배터리3사의 성장률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6.4%, SK온은 12.6%, 삼성SDI는 0.4% 성장에 그쳐 글로벌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였으며, 배터리 3사의 시장점유율도 45.6%로 전년동기대비 2.7%p 하락하였다.

HYTC 매출액 추이



자료: HY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HYTC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HY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 (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매출액           | 1,851 | 2,497 | 3,121 | 2,698 | 3,310 |
| 증가율(%)        | -1.7  | 34.9  | 25.0  | -13.6 | 22.7  |
| 매출원가          | 1,485 | 1,754 | 2,226 | 1,963 | 2,367 |
| 매출원가율(%)      | 80.2  | 70.2  | 71.3  | 72.8  | 71.5  |
| 매출총이익         | 366   | 743   | 895   | 734   | 943   |
| 매출이익률(%)      | 19.8  | 29.7  | 28.7  | 27.2  | 28.5  |
| 판매관리비         | 231   | 289   | 318   | 323   | 355   |
| 판매비율(%)       | 12.5  | 11.6  | 10.2  | 12.0  | 10.7  |
| EBITDA        | 226   | 542   | 670   | 525   | 701   |
| EBITDA 이익률(%) | 12.2  | 21.7  | 21.5  | 19.5  | 21.2  |
| 증가율(%)        | 584.9 | 139.9 | 23.5  | -21.6 | 33.4  |
| 영업이익          | 135   | 454   | 577   | 411   | 588   |
| 영업이익률(%)      | 7.3   | 18.2  | 18.5  | 15.3  | 17.8  |
| 증가율(%)        | 흑전    | 235.2 | 27.3  | -28.7 | 43.0  |
| 영업외손익         | 85    | 14    | 129   | 151   | 47    |
| 금융수익          | 92    | 140   | 177   | 192   | 133   |
| 금융비용          | 15    | 128   | 55    | 40    | 38    |
| 기타영업외손익       | 7     | 3     | 7     | 0     | -49   |
|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 0     | 0     | 0     | 0     | 0     |
| 세전계속사업이익      | 220   | 468   | 706   | 563   | 635   |
| 증가율(%)        | 흑전    | 112.3 | 51.0  | -20.3 | 12.8  |
| 법인세비용         | 35    | 100   | 125   | 111   | 120   |
| 계속사업이익        | 185   | 368   | 581   | 452   | 515   |
| 중단사업이익        | 0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         | 185   | 368   | 581   | 452   | 515   |
| 당기순이익률(%)     | 10.0  | 14.7  | 18.6  | 16.8  | 15.6  |
| 증가율(%)        | 흑전    | 98.3  | 58.0  | -22.2 | 13.9  |
|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 152   | 358   | 551   | 444   | 505   |

현금흐름표

| (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13  | 463  | 543  | 518   | 289   |
| 당기순이익           | 185  | 368  | 581  | 452   | 515   |
| 유형자산 상각비        | 82   | 79   | 83   | 105   | 104   |
| 무형자산 상각비        | 9    | 10   | 10   | 9     | 9     |
| 외환손익            | 1    | 46   | 12   | 0     | 0     |
| 운전자본의감소(증가)     | 108  | -156 | -137 | -0    | -345  |
| 기타              | 28   | 116  | -6   | -48   | 6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64 | -626 | -631 | -296  | -179  |
|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 -336 | -231 | -54  | -277  | -3    |
| 유형자산의 감소        | 3    | 2    | 1    | 0     | 0     |
| 유형자산의 증가(CAPEX) | -139 | -71  | -202 | -120  | -100  |
| 기타              | 8    | -326 | -376 | 101   | -76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76  | 227  | -75  | -63   | -63   |
| 차입금의 증가(감소)     | -51  | -96  | -10  | -19   | 2     |
| 사채의증가(감소)       | 0    | 0    | 0    | 0     | 0     |
| 자본의 증가          | 0    | 360  | 0    | 0     | 0     |
| 배당금             | -13  | -26  | -44  | -44   | -65   |
| 기타              | -12  | -11  | -21  | 0     | 0     |
| 기타현금흐름          | 1    | -14  | -1   | -3    | 0     |
| 현금의증가(감소)       | -127 | 51   | -164 | 156   | 47    |
| 기초현금            | 548  | 421  | 472  | 309   | 464   |
| 기말현금            | 421  | 472  | 309  | 464   | 511   |

재무상태표

| (억원)      | 2021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유동자산      | 2,346 | 3,127 | 3,035 | 3,070 | 3,604 |
| 현금성자산     | 421   | 472   | 309   | 464   | 511   |
| 단기투자자산    | 129   | 600   | 820   | 769   | 839   |
| 매출채권      | 542   | 685   | 607   | 607   | 745   |
| 재고자산      | 1,222 | 1,302 | 1,243 | 1,181 | 1,449 |
| 기타유동자산    | 32    | 67    | 57    | 49    | 60    |
| 비유동자산     | 2,706 | 2,813 | 3,228 | 3,511 | 3,502 |
| 유형자산      | 1,635 | 1,637 | 1,774 | 1,789 | 1,785 |
| 무형자산      | 427   | 418   | 409   | 400   | 391   |
| 투자자산      | 298   | 362   | 622   | 900   | 903   |
| 기타비유동자산   | 346   | 396   | 423   | 422   | 423   |
| 자산총계      | 5,052 | 5,940 | 6,263 | 6,582 | 7,106 |
| 유동부채      | 287   | 525   | 340   | 302   | 370   |
| 단기차입금     | 0     | 0     | 0     | 0     | 0     |
| 매입채무      | 87    | 206   | 82    | 82    | 101   |
| 기타유동부채    | 200   | 319   | 258   | 220   | 269   |
| 비유동부채     | 234   | 173   | 169   | 139   | 171   |
| 사채        | 0     | 0     | 0     | 0     | 0     |
| 장기차입금     | 50    | 0     | 0     | 0     | 0     |
| 기타비유동부채   | 184   | 173   | 169   | 139   | 171   |
| 부채총계      | 521   | 698   | 509   | 441   | 541   |
| 자배주주지분    | 4,361 | 4,801 | 5,288 | 5,667 | 6,082 |
| 자본금       | 133   | 133   | 133   | 133   | 133   |
| 자본잉여금     | 344   | 443   | 443   | 443   | 443   |
| 자본조정 등    | -113  | -113  | -113  | -113  | -113  |
| 기타포괄이익누계액 | -15   | -15   | -18   | -18   | -18   |
| 이익잉여금     | 4,013 | 4,353 | 4,844 | 5,223 | 5,637 |
| 자본총계      | 4,531 | 5,242 | 5,754 | 6,141 | 6,566 |

주요투자지표

|              | 2021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P/E(배)       | 18.9   | 11.9   | 7.1    | 10.5    | 11.2   |
| P/B(배)       | 0.7    | 0.9    | 0.7    | 0.8     | 0.9    |
| P/S(배)       | 1.6    | 1.7    | 1.3    | 1.7     | 1.7    |
| EV/EBITDA(배) | 11.4   | 6.7    | 4.9    | 7.5     | 6.8    |
| 배당수익률(%)     | 0.9    | 1.1    | 1.2    | 1.4     | 1.6    |
| EPS(원)       | 574    | 1,350  | 2,078  | 1,675   | 1,905  |
| BPS(원)       | 16,458 | 18,117 | 19,954 | 21,386  | 22,949 |
| SPS(원)       | 6,987  | 9,424  | 11,776 | 10,180  | 12,491 |
| DPS(원)       | 100    | 170    | 170    | 250     | 350    |
| 수익성(%)       |        |        |        |         |        |
| ROE          | 3.5    | 7.8    | 10.9   | 8.1     | 8.6    |
| ROA          | 3.8    | 6.7    | 9.5    | 7.0     | 7.5    |
| ROIC         | 4.3    | 10.0   | 12.9   | 8.6     | 12.5   |
| 안정성(%)       |        |        |        |         |        |
| 유동비율         | 816.5  | 595.9  | 892.2  | 1,018.0 | 973.9  |
| 부채비율         | 11.5   | 13.3   | 8.8    | 7.2     | 8.2    |
| 순차입금비율       | -10.4  | -20.0  | -19.1  | -19.9   | -20.4  |
| 이자보상배율       | 18.3   | 70.5   | 75.7   | 76.6    | 204.4  |
| 활동성(%)       |        |        |        |         |        |
| 총자산회전율       | 0.4    | 0.5    | 0.5    | 0.4     | 0.5    |
| 매출채권회전율      | 3.5    | 4.1    | 4.8    | 4.4     | 4.9    |
| 재고자산회전율      | 1.5    | 2.0    | 2.5    | 2.2     | 2.5    |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 종목명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
| 태광  | X      | X      | X      |

발간 History

| 발간일        | 제목                               |
|------------|----------------------------------|
| 2024.01.18 | 태광-십여 년 만에 호황 국면인 세계 1위 산업용 피팅업체 |
| 2025.02.11 | 태광-중동과 북미의 LNG PJ 확대로 수혜 장기화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